

# 후백제 흔적 따라가는 국가유산 축제 성료

### '상반기 전주국가유산야행' 역사문화 콘텐츠·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열려

전주의 국가유산을 따라 걷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특별한 밤을 선사하는 '2026 상반기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2026 상반기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진행했다.

'전원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방문객이 도시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가고 경험하는 몰입형 국가유산 축제로 꾸며졌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인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풍남문과 전라감영 등에 숨겨진 후백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 단상을 모아 견원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가 이야기 속 주인공 '신검'이 돼 역사 속 여

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기획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잊힌 후백제의 역사와 후백제 왕도 전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전 광장은 '견원대왕배 씨름대회'를 통해 거대한 씨름판으로 변모했다. 참가자들이 모래판 위에서 열린 승부를 펼치는 동안 관람객들의 응원과 함성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여기에 지역 전통예술가들이 참여한 국가유산 콘서트인 '풍류 한마당'이 더해져 전통문화가 오늘날에도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임을 보여주었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 역시 치열한 예약 경쟁 속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역사와 체험을 결합한 전주야행만의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유산 1박2일(전라감영 캠핑 체험)'은 예약 개시 1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확인시켰다.

또한 전주향교에서 운영된 '향교과담'은 숭바꼭질과 향교의 교육적 정체

성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참가자들이 공동 미션인 '담안지 탈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후백제 왕궁, 산성행'은 기존 강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남고산성과 인봉리, 종래대, 무릉(이중저수지) 등 전주 곳곳의 후백제 유적을 객장근 교수(군산대학교 역사학과)와 함께 직접 걸으며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일반 관광객은 물론 전주 공무원과 지역문화 스토리텔러,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단순한 역사 기행을 넘어 전주의 역사문화를 재해석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이뤄졌다. 올해 전주야행에서는 축제장 인근 상점 20여 곳과 연계한 현장 이벤트가 운영되고, 참여자에게 제휴업체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연계를 통해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화를 통해 전주국가유산야행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 상생형 축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전주야행은 국가유산을 단순히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역사·문화·체험·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유산 활용의 새로운 방향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후백제 역사 활용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기존 조선시대 중심의 역사 활용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조영되지 않았던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적 자산을 새롭게 콘텐츠화함으로써 전주야행만의 고유한 서사와 세계관을 한층 풍성하게 구축한 것은 물론, 전주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순국선열·호국영령 닉 추모

### 전주시, 전주군경묘지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전주시는 지난 6일 전주군경묘지에서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보존단체장, 도·시의원, 유가족 및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분간 이어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육군 제9685부대 2대대의 조총 발사 △진혼곡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추념식이 엄숙하게 진행됐다.

김영도 전물군경유족회 전주시지

회장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호국영웅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분들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숭고한 뜻을 잊지 않으며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존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존 일자리사업, 보존단체 운영 지원, 보존문화 계승·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중화산1동 일원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 전주시·전북환경청,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중화산1동 일원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추진된 이번 캠페인에는 운동목 전주 부시장과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본부장, 자생단체, 환경관리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취약지를 정비했다. 또, 중화산1동 한두평 공원부터 근영여고 일원에서 줄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와 관련 시는 꾸준히 35개 동에서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4618명이 참여해 총 418회 환경정비를 수행했다. 구제

적으로 시는 매월 시민봉사를 선정해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현재 9개동(송천1, 송천2, 금암, 여의, 혁신, 중앙, 서서학, 평화2, 삼천2)의 취약지를 시·구·동 합동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과 함께 웨딩거리(웨리단길)와 객사길(객리단길) 일원 취약지 정비 및 청소 행정 홍보 등을 추진, 다양한 기관과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의 취약지 등을 집중 점검 및 캠페인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투기 방지 및 일몰 후 배출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 관광 발전 전략 제시

### 전주시정연구원, 국제자료 분석 이슈프린트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국제적인 위기관리 지역경제지표를 활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 전주시 덕진구·완산구의 사업자 현황·소비·기밀간 거래(B2B) 등 8개 지표를 추적 분석한 'IRI 이슈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국제점이 지난해 6월부터 공개해 온 해당 국제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전주시 가동사업자는 8개월간 11만6761명에서 11만7836명으로 1075명(+0.9%) 꾸준히 증가했고, 소비지지도도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의 이면에는 △소비 계절성 △연말 폐업 집중 △완산·덕진구 산업 구조 이원화 △B2B 다각화 부재의 4대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돼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전주시의 매출 지수(소매업 기준)는 지난해 12월 최고치(덕진

164.2·완산 167.6)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107~108로 급락해 35~37%의 급격한 낙차를 보였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전주시 함께 기준 지난해 12월 4931억 원에서 올해 1월 4683억 원으로 하락했다. 또, 비수기(1~2월·7~8월)의 지역업 현금흐름 약화와 임차료 연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덕진구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건수 우위(완산의 1.5배)·현금거래 비중 높음(-20%)으로 도매·유통·제조 중심의 구조를 보이는 반면, 완산구는 신용카드 소비 우위·12월 B2B 단가 역전(481만원)·덕진 460만원)으로 고부가 서비스 중심 구조로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 산업정책보다 구별 맞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전주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주요 방향은 △소비 평탄화: 비수기(1~2·7~8월) 지역화폐 캐시백 15% 상향, 음식·숙박·문화 3종 묶음권 발행, 비수기 임차료 지원 △사업체 생태계: 영업유지지수(BRI) 조기 경보체계 구축으로 긴급 운전자금 무이자 지원, 재창업 패스트트랙, 창업 멘토링 매칭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덕진 스마트 제조·공공물류 특화지구 조성, 완산 고부가 서비스 특화지구, 공동 브랜드 'JEONJU MADE' △데이터 기반 관리: 실시간 경제 모니터링, 경기지수 개발, 연간 지역경제 백서 발간 등이다. /권희성 기자

### 에코자이어린이집, 프리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공공형 에코자이어린이집(원장 박은주)은 지난 5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범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13만 원을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프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으로, 위기에 놓인 이웃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에코자이어린이집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동의류와 장난감, 생필품, 먹거리 등을 준비해 풍성한 프리마켓을 운영했으며, 교직원과 원아,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에코자이어린이집은 202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주시복지재단의 '백만천사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공공형 에코자이어린이집은 지난 5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13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